

#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 관계: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영\*\* · 한윤선\*\*\*

## Ⅰ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폭력비행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마다 엄벌주의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위해서는 문제 행동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폭력비행의 위험요인으로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에 주목하였다. ACEs란 만 18세 미만에 경험한 학대를 비롯해 가정폭력,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같은 가족 역기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ACEs 경험 유형을 분류하고, 비행 위험이 높은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였다. 각각의 유형은 경험 특성에 따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역기능적 가정환경', '가족 해체'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간 비행에 가담할 위험을 비교한 결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비해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비행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결과는 폭력비행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예방적, 사후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3045529).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제1저자 및 교신저자, kimsy317@snu.ac.kr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공동저자

투 고 일 / 2022. 6. 7.

심 사 일 / 2022. 6. 22.

심사완료일 / 2022. 7. 13.

DOI/10.14816/sky.2022.33.3.135

## Ⅱ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ACEs)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 간 비교를 통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청소년 집단을 확인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과거에 경험한 역경 사건들이 폭력비행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존하는 국내 ACEs 연구들은 모두 성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역경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가구원의 응답 자료를 활용해 국내 ACEs 연구를 확장하고 ACEs와 폭력비행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4차년도(2009년)와 이후 신규패널로 추가된 13차년도(2017년) 가구원 데이터, 가구원용 데이터, 아동부가조사를 결합하였으며, 총 797명(4차=514명, 13차=283명)의 응답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25.85%), 역기능적 가정환경(57.46%), 가족 해체(16.69%)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배우자 폭력과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배우자 폭력과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족 해체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앞선 두 집단과 비교하여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역경 사건들을 경험한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 간 비행 가능성을 비교한 실시한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의 폭력비행 가능성이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OR=2.031,  $p<.05$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 청소년의 역경 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방안의 필요성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폭력비행,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잠재계층분석

## I. 서 론

폭력비행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는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적·물질적·성적 공격 등 모든 폭력 행위를 포함한다(박지수, 김하영, 유진경, 한윤선, 2017). 청소년기의 폭력비행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개인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폭력비행 피해 경험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비롯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살 생각, 신체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Arseneault et al., 2006; David-Ferdon et al., 2016; Haegerich & Dahlberg, 2011).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Haegerich & Dahlberg, 2011), 피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을 방해해 성인기의 정신병리로 발현되기도 한다(Arseneault et al., 2006; Quinlan et al., 2020). 가해를 저지른 청소년 또한 폭력비행의 부정적 영향에 자유롭지 않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적인 낙인과 편견, 학교로부터의 제재는 학교 부적응과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져 학교 중퇴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기광도, 2012; Staff & Kreager, 2008).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폭력비행은 청소년기의 신체 손상, 학업 성취도의 저하, 학교 중퇴 등은 인적 자본의 축적을 막고, 성인기의 구직활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저하한다(Belfield, Levin & Rosen, 2012; David-Ferdon et al., 2016; WHO, 2020). 만약 비행이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사법 제도운영, 치안 유지, 교정을 위한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Belfield et al., 2012; David-Ferdon, Simon & Knuth, 2014). 이처럼 폭력비행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청소년의 폭력비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지만, 경험적 연구들은 엄벌주의적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 낙인은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재비행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Bernberg, Krohn & Rivera, 2006). 청소년이 구금되는 경우, 이들은 교정 시설 내에서 만난 청소년으로부터 새로운 비행 수법을 배워 출소 후에도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Eren & Mocan, 2021). 또한, 정확이나 퇴학 등으로 인해 교육 및 재사회화 기회가 박탈된다면 이들이 성인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박상식, 2013; 허경미, 2018). 따라서, 적절한 개입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비행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허경미, 2018; Gregory & Cornell, 2009).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벌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물론, 타고난 기질, 성향 등의 개인 내적 특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DeLisi & Vaughn, 2014).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폭력비행 경험 또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Farrington, 2004).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청소년이 과거에 경험한 역경 사건들은 폭력비행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도 사법 체계에 연루된 청소년의 상당수가 과거 외상 사건(traumatic event)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Dierkhising et al., 2013; Moreland & Ressler, 2021; Wilson et al., 2013), 이들은 가정, 또래 관계, 학교 등 다양한 맥락에서 부정적인 사건들을 누적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Kurlychek & Johnson, 2019). 예컨대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학대 및 방임(Lansford et al., 2007), 가정폭력 목격(Moylan et al., 2010), 부모의 약물 사용(WHO, 2020) 등 다양한 역경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단일한 역경 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는 경우 해당 경험이 지닌 영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체로 역경 경험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또 다른 역경과 중복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박애리, 정익중, 2018; Hughes et al., 2017), 누적된 위험 가설(cumulative risk hypothesis)에 따르면 복수의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위험요인의 영향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Appleyard, Egeland, van Dulmen & Alan Sroufe, 2005; Sameroff, 2000). 따라서, 역경 경험들이 청소년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역경 경험들의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Felitti 외(1998)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이하 ACEs)’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정적 사건들과 개인의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해왔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은 만 18세 미만에 경험한 학대와 가족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외상 경험들(traumatic events)을 의미하며(Felitti et al., 1998; Waite & Ryan, 2019) 단일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의 한계점과 역경 경험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고안된 것이다. ACEs를 처음으로 소개한 Felitti 외(1998)의 연구에서는 ACEs를 학대 경험(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과 가정 내 역기능(household dysfunction: 가구원의 약물 남용, 가구원의 정신질환, 어머니에게 가해지는 폭력, 가구원의 수감 경험 등)의 두 범주로 분류하였다. 당초 Felitti 외(1998)의 연구는 과거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성인기 건강 상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인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암, 만성적 간 질환과 같은 다양한 신체 질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ACEs는 음주, 흡연 등의 건강 위험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는 미국 내 사망 원인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 질병들이 ACE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ACEs를 사회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제시되었다(Dube, 2018; Ford et al., 2019).

ACEs는 성인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Fagan & Novak, 201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폭력비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ACEs에 해당하는 경험의 개수로 계산된 누적점수 점수가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은 38%에서 88%로, 남자 청소년은 35%에서 144%로 증가하였다 (Duke et al., 2010). 또한, 4개 이상의 ACEs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ACEs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폭력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10배까지 높았으며, 청소년이 경험한 ACEs 개수가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신체적 싸움 등의 폭력 비행이 발생할 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agan & Novak, 2018; Garrido, Weiler & Taussig, 2018; Hunt, Slack & Berger, 2017). 나아가, 일반 청소년이 아닌 폭력 범죄 전과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ACEs와 폭력비행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Fox 외(2015)와 Wolff 외(2017)에 따르면, 폭력 범죄 전과를 가진 청소년 중 ACEs 점수가 더 높은 청소년은 초범 이후 더욱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또한, ACE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재범 확률이 높아졌고, 소년 사법 과정이 종결된 이후로부터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축되었다(Wolff, Baglivio & Piquero, 2017).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ACEs 경험 개수를 합산한 점수와 폭력비행 간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누적점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측정 및 개념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해당 방식에서는 ACEs에 포함된 하위 경험들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응답자가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의 상당수가 누락된다. 예컨대, 누적점수를 사용하는 경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우울증을 앓는 가구원과의 거주 경험이 있는 아동의 ACEs 점수는 모두 1점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ACEs에 포함된 각각의 경험들은 이질적이며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는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생 위험을 높이지만, 가구원의 우울을 목격한 경우에는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liams, Anderson, McGee & Silva, 1990). 또한, ACEs 누적점수는 총점이 어떠한 경험으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점수를 사용할 경우 응답자들이 경험한 ACEs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없다. 둘째로, 누적점수 방식에서는 ACEs 개수와 부정적 발달 결과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누적점수는 기본적으로 ACEs가 부정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산적(additive)이라고 전제한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ACEs 점수가 특정 발달 결과에 미치는 효과는 개별적인 부정적 경험들의 효과를 합산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적점수 방식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1~3점에 해당하는 ACEs 점수와 0점이 갖는 영향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2점과 3점 간의 차이가 7점과 8점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존재하였다(Evans, Li & Whipple, 2013). 이처럼 누적점수 방식은 편리성과 간결성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후속 연구들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과 같은 개인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식을 통해 ACEs를 유형화하였다(Barboza, 2018).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ACEs 유형화의 목적은 문항에 대한 개인의 응답 패턴에 따라 응답자들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ACEs가 중첩되어 발생하는 경우 어떤 구별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박애리, 정익중, 2018; Merians, Baker, Frazier & Lust, 2019).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을 통한 ACEs 유형화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자가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임의로 집단을 구분할 때보다 응답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Barboza, 2018; Masyn, 2013). 둘째, 분류된 유형마다 어떠한 개별 경험들이 중복되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경험이 지닌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된 잠재집단에 속한 청소년도 연구에서 누락되지 않고 주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은 수를 차지하지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 중심 접근 방식을 사용한 ACEs 유형화는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Merians et al., 2019). 나아가 어떠한 ACEs 유형이 특정한 발달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여(Barboza, 2018) 개입 방안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잠재계층분석으로 ACEs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이 몇 차례 소개되었다. 이들은 누적점수를 사용한 연구들이 지닌 한계점들을 보완함과 동시에 국내 학계에 ACEs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기 이전의 경험과 성인기 이후의 발달 결과 간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과 청소년기의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진 바는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중학생 시기 청소년의 응답을 통해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살펴보고,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해당 경험들이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McEwen & Gregerson, 2019) 청소년 응답자의 경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개입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청소년 집단이 확인된다면, 청소년이 폭력비행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역경 경험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큰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예방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 문제 2.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비행 경험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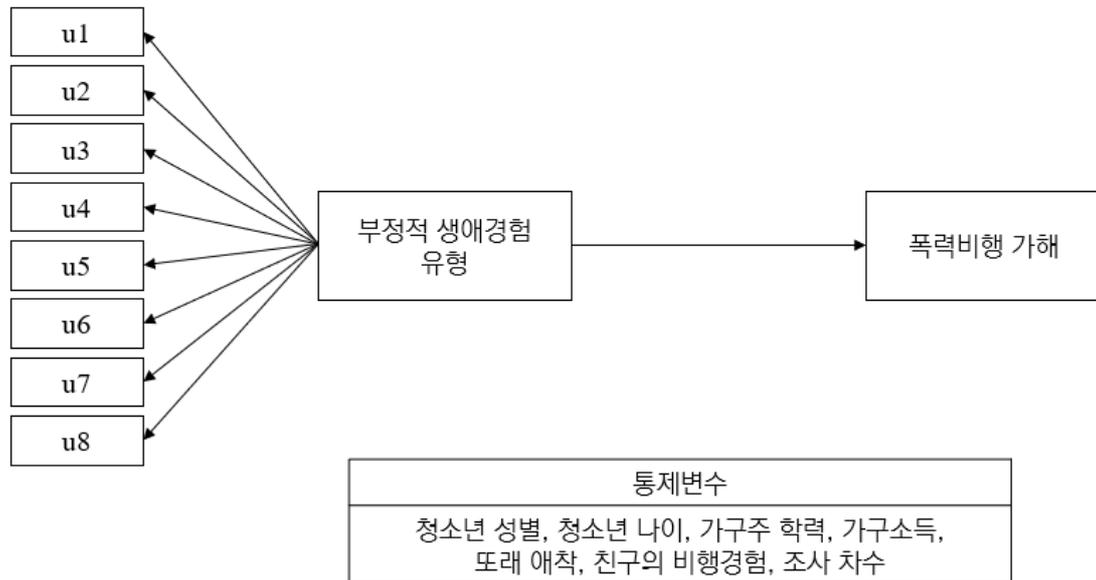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의 4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7)의 아동부가조사, 가구용 데이터, 가구원용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KoWePS)은 다양한 인구집단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경제 및 생활실태 변화를 조사하기 목적으로 진행되는 패널 조사이다. 2006년에 이루어진 1차 조사 이후 원 표본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표본가구 추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차년도 표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7차년도부터는 1,800개의 신규 패널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4차년도 자료는 원 표본가구의 응답이며, 13차년도 자료는 새롭게 추가된 가구 자료이다. 중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 경험에

더욱 취약한 동시에(Farrell & Sullivan, 2004; Mrug & Windle, 2009), 가해에 가담할 가능성이 증가한다(Blum, Astone, Decker & Mouli, 2014; Lansford, Dodge, Fontaine, Bates & Pettit, 2014). 이를 고려해 본 연구는 아동부가조사의 응답자가 중학생이었던 4차년도(2009년)와 13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4차년도 조사에서는 604명의 청소년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13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서는 391명이 모든 문항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고자 두 시점의 자료를 결합해 사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4차년도 조사 참여자와 13차년도 조사 참여자를 구분하기 위해 코호트 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에 응답한 797명(4차=514명, 13차=283명)의 청소년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 2. 측정도구

### 1) 청소년의 폭력비행

청소년의 폭력비행은 아동부가조사의 '비행경험' 문항 중 폭력비행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아동부가조사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비행경험을 측정하였으며, 비행경험을 측정한 문항은 총 8개이다. 본 연구는 총 8개의 비행 문항 중 앞서 제시한 폭력비행의 정의에 부합하는 네 개의 문항을('다른 사람 폭행 경험', '물건이나 돈을 뺏은 경험', '폭력써클 가입경험', '패싸움 해본 경험') 선택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1=그런 적 없다; 6=5번 이상). 본 연구에서는 네 문항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한 경우를 1,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 2)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형은 가구 조사, 가구원조사, 아동부가조사 자료의 응답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잠재계층분석(LCA)으로 분류된 세 개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이 본 연구의 독립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더미 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하위 경험들은 학대(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가족 역기능(부모와의 분리,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 가구원의 우울, 가정 내 폭력)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측정한 것이며, 경험 여부에 따라 '0=경험 없음'과 '1=경험 있음'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학대는 아동부가조사자료를 사용해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신체 학대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정서 학대는 총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나를 꾸짖은 일', '부모님이 너만 없었으면 속이 편할 거라고 말한 일', '부모님이 모욕적인 말을 한 일'). 성 학대는 성추행 피해 경험을 묻는 두 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지난 1년간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진 경험', '지난 1년간 타인이 옷을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 한 경험')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총 네 가지이다('내가 늦게 와도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이유 없이 내가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 한다', '내가 몰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체한다', '불량오락실 출입사실을 알아도 모른 체하는 일').

가정 내 역경 중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여부는 청소년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부모와의 분리 경험은 청소년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를 해당 역경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구조사의 '가구형태' 문항과 가구원조사에 포함된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을 활용하였다.<sup>1)</sup>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성은 가구원조사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AUDIT에 포함된 문항은 총 10개 이고, AUDIT 가이드에 따라 응답을 5점 척도(0점=전혀 없음; 4점=거의 매일)로 변경한 후 10개 문항의 총합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8점 이상인 경우가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로 평가된다(Babor et al., 2001). 문항의 예시로는 '한 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등이 있다. 가구원의 우울증은 가구원조사에 포함된 CESD-11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11개로 되어 있으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간의 심리상태를 측정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식욕이 없음', '상당히 우울',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등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1=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이하)'부터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의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CESD-11에 따라 1~4점을 0~3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 '불만 없이 생활' 문항은 역 코딩하였으며, 응답의 총점에 20/11을 곱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

1) '가구형태'의 응답 범주는 단독(1인가구), 모자(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 부자(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로만 구성), 소년소녀가장(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단, 만 65세 이상인 노인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함), 비해당(앞선 가구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으로 되어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은 가구원조사 응답자가 가구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가구형태 문항을 통해 모자, 부자, 소년소녀가장에 응답한 가구는 부모와의 분리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비해당에 응답한 가구 중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비롯해 조손 가정, 부모 중 한 사람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비해당 응답 가구의 부정적 생애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을 통해 가족 구성을 파악하였다.

증을 의심할 수 있다(Lewinsohn et al., 1997). 배우자 간 폭력 여부는 배우자 간의 언어적 폭력, 폭력 위협, 직접적 폭력 행사 경험에 관한 것으로 가구원조사에 있는 세 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함’, ‘신체적 폭력의 위협에 대한 경험’,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함’). 세 가지 중 한 가지 경험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정 내에서 배우자 간 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 3) 통제변수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 가구주 학력,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외에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래 애착, 친구의 비행경험을 통제하였다(Bushman et al., 2016; Dahlberg & Potter, 2001).

원자료에서 청소년의 성별은 ‘1=남’, ‘2=여’로 되어 있어 더미 변수(0=여, 1=남)로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청소년 나이의 경우, 원자료에는 나이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생년만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과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계산해 변수를 생성하였다. 가구 조사에 포함된 가구주의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 졸’까지 7가지 범주로 분류되어 있으나, 점수의 분포와 간명성을 위해 기존의 응답을 ‘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이상’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복지패널에서 정의하는 저소득 가구는 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0)와 일반 가구(= 1)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래 애착 문항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4가지이며 문항의 예시로는 ‘내 친구는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등이 있다. 친구의 비행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6개로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또래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항상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에 따라 1~4점을 0~3점으로 코딩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경험은 총점이 높을수록 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확인함으로써 연구 대상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여덟 가지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 가해 경험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잠재계층을 분류해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양상을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적합도 지수인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Akaike, 1974)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Schwartz, 1978)을 참고하고, 분류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Entropy 값을 확인하였다. 정보적합도지수인 AIC와 BIC는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것으로 파악한다(Geiser, 2012). Entropy는 1에 가까워질수록 분류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70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경우 비교적 정확히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Nagin, 2005). 모형 간의 비교검증을 위해서는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LRT; Lo, Mendell & Rubin, 2001)와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BLRT; McLachlan & Peel, 2000)를 이용할 수 있다. 유의도 .05 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는 경우, 잠재계층이 k개로 분류된 모형보다 k-1개로 분류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잠재계층분석 과정에서는 조사 차수를 더미 변수로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셋째로,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폭력비행 가해 위험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또래 관계, 그리고 조사 차수를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잠재계층분석에는 Mplus 7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분석에는 Stata 14.0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기술통계분석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연구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청소년과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표 1). 다음으로,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대상

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전체 797명 중 남자 청소년이 401명(50.31%), 여자 청소년이 396명(49.69%)으로 남자 청소년이 근소하게 많았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58세( $SD=0.937$ )이며,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각각 12세와 17세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1학년은 255명(31.99%), 2학년이 272명(34.13%), 3학년이 270명(33.88%)을 차지해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많았다.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소득 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가구주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131명(16.44%), 고등학교 졸업이 356명(44.67%), 전문대 졸업이 97명(12.17%),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3명(26.7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경우, 균등화된 경상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60%인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정의하였다. 전체 가구 중 180 가구(22.58%)가 저소득가구이며 617 가구(77.42%)는 일반 가구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나타내는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 경험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또래 애착의 평균은 9.427( $SD=2.027$ )로 나타났다. 최솟값과 최댓값이 각각 0과 12임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의 또래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비행 정도는 평균이 2.541( $SD=1.969$ )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분 (범위)	N (%)	평균 (SD)	범위
성별	남	401 (50.31%)		
	여	396 (49.69%)		
연령 (세)			14.58 (0.937)	12-17
학년	1학년	255 (31.99%)		
	2학년	272 (34.13%)		
	3학년	270 (33.88%)		
가구주 학력	중졸 이하	131 (16.44%)		
	고졸	356 (44.67%)		
	전문대졸	97 (12.17%)		
	대졸 이상	213 (26.73%)		
가구 소득	저소득	180 (22.58%)		
	일반	617 (77.42%)		
또래 애착			9.427 (2.027)	0-12
친구의 비행			2.541 (1.969)	0-16

## 2) 부정적 생애경험

부정적 생애경험의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역경 경험 양상을 파악하였다.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8가지의 부정적 생애경험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누적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8점까지이다. 하지만, 청소년이 보고한 점수는 최소 0점부터 최대 6점의 범위에 분포해 7점과 8점을 보고한 청소년이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의 평균은 1.577( $SD=1.202$ )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80.68%(643명)는 최소 한 종류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정적 생애경험 점수의 최빈값은 1점으로 32.75%(261명)의 청소년이 한 종류의 역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2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27.60%(220명)로 나타나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구분	N (%)	평균 (SD)	왜도	첨도
신체 학대	129 (16.19%)	0.162 (0.369)	1.836	4.371
정서 학대	226 (28.36%)	0.284 (0.451)	0.960	1.922
성 학대	15 (1.88%)	0.019 (0.136)	7.082	51.153
방임	66 (8.28%)	0.083 (0.276)	3.028	10.166
부모와의 분리	143 (17.94%)	0.179 (0.384)	1.671	3.792
우울	67 (8.41%)	0.084 (0.278)	2.998	9.987
알코올 의존성	373 (46.80%)	0.468 (0.499)	0.128	1.016
배우자 폭력	238 (29.86%)	0.299 (0.458)	0.880	1.775
부정적 생애경험 누적점수	0 154 (19.32%)			
	1 261 (32.75%)			
	2 220 (27.60%)			
	3 110 (13.80%)	1.577 (1.202)	0.699	3.403
	4 38 (4.77%)			
	5 10 (1.25%)			
	6 4 (0.50%)			
폭력비행	77 (9.66%)	0.097 (0.296)	2.731	8.458

## 2. 잠재계층분석

### 1) 부정적 생애경험 잠재계층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정보지수 변화 양상과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AIC 값은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C의 경우, 잠재계층이 3개인 모형까지는 감소하였으나, 4개로 분류된 모형에서 증가하였다.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세 모형 중 잠재계층이 모형 3, 4, 5에서 0.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LRT 검증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LMR-LRT 검증 결과가 잠재계층의 수가 4개일 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계층이 4개인 모형은 3개로 분류된 모형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적합도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3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3  
잠재계층분석 적합도 분석 결과

Model	AIC	BIC	Entropy	LMR-LRT ( <i>p</i> -value)	BLRT <i>p</i> -value
2	5390.731	5474.986	0.697	186.270 ( <i>p</i> <.001)	<i>p</i> <.001
3	5286.901	5417.965	0.759	122.004 ( <i>p</i> <.01)	<i>p</i> <.001
4	5246.390	5424.262	0.754	59.619 ( <i>p</i> =.117)	<i>p</i> <.001
5	5236.049	5460.730	0.787	29.893 ( <i>p</i> =.224)	<i>p</i> <.001

\**p*<.05, \*\**p*<.01, \*\*\**p*<.001

### 2) 잠재계층별 특성

잠재계층분석으로 분류된 3개의 집단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 양상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그림 2). 집단 1에는 전체 청소년의 25.85%(206명)가 속해 있다. 집단 1은 전체 청소년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청소년이 포함된 집단이다. 해당 집단은 학대 경험 중 신체 학대, 정서 학대 경험이 높았으며 배우자 간 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을 경험한 청소년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경험과

역기능적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사건인 배우자 간 폭력,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성 경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해당 집단은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57.46%(458명)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세 집단 중 크기가 가장 크다. 해당 집단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생애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으나,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성과 배우자 간 폭력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해 집단 2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3은 청소년의 16.69%(133명)가 속한 유형으로, 가장 작은 수의 청소년이 포함된 집단이다. 해당 집단은 부모와의 분리 경험 비율이 특징적으로 높았다. 학대 경험의 점수는 집단 1보다는 낮으나, 집단 2와 비교했을 때에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집단 3은 ‘가족 해체’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각각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내에서 개별적인 역경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을 확인하였으며, 분류된 유형과 역경 경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형별 경험 비율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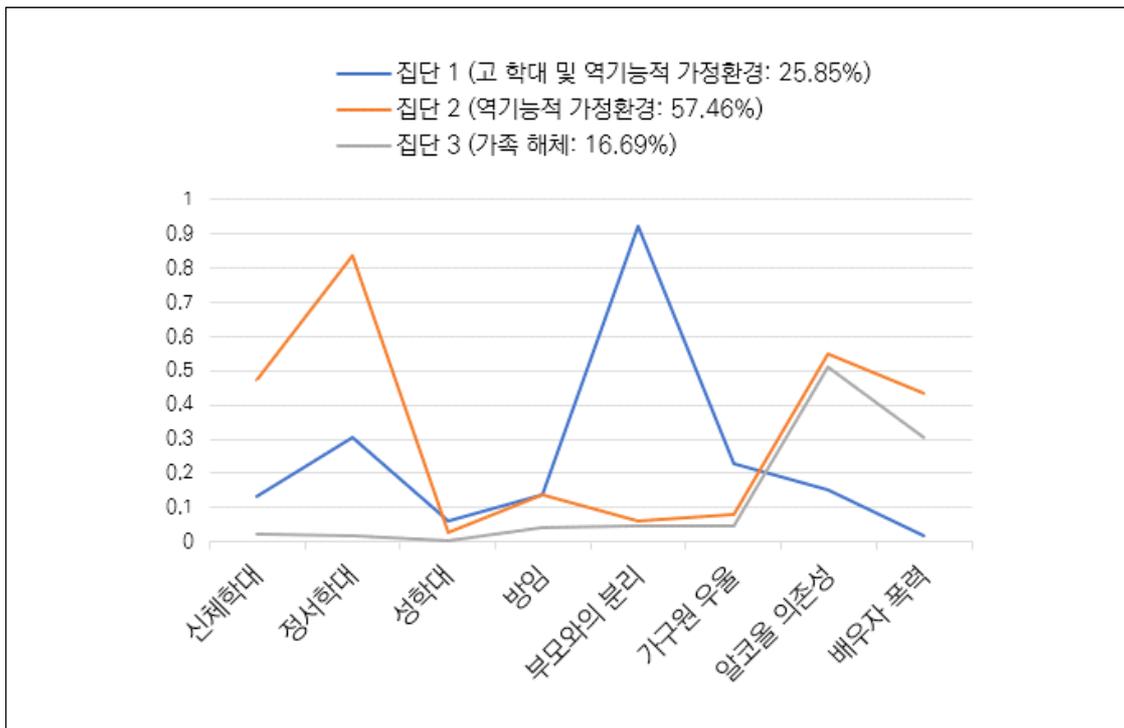


그림 2.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별 응답 패턴

표 4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별 역경 경험 비율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전체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카이제곱 검정 $\chi^2(p)$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역기능적 가정환경	가족 해체	
	<i>N</i> =797 (100%)	<i>n</i> =206 (25.85%)	<i>n</i> =458 (57.46%)	<i>n</i> =133 (16.69%)	
신체 학대	16.19%	50.49%	1.75%	12.78%	250.17*** ( <i>p</i> <0.001)
정서 학대	28.36%	90.78%	0%	29.32%	576.42*** ( <i>p</i> <0.001)
성 학대	1.88%	2.43%	0.44%	6.02%	17.82*** ( <i>p</i> <0.001)
방임	8.28%	13.11%	4.59%	13.53%	19.38*** ( <i>p</i> <0.001)
부모와의 분리	17.94%	3.40%	1.09%	98.50%	704.10*** ( <i>p</i> <0.001)
우울	8.41%	7.77%	5.02%	21.05%	34.55*** ( <i>p</i> <0.001)
알코올 의존	46.80%	54.85%	51.97%	16.54%	59.18*** ( <i>p</i> <0.001)
배우자 폭력	29.86%	44.17%	30.57%	5.26%	58.68*** ( <i>p</i> <0.001)

\**p*<.05, \*\**p*<.01, \*\*\**p*<.001

각 유형 내에서 특정 역경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학대의 경우, 전체 청소년(16.19%)의 응답 비율에 비해 고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50.49%)의 응답 비율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신체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고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90.78%)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족해체 유형(29.32%)의 응답 비율이 전체 청소년(28.36%)의 응답 비율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성학대는 측정된 역경 중 경험 비율이 가장 낮으며, 1.88%의 청소년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세 집단 중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0.44%)의 경험 비율만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가족 해체 유형(6.02%)의 피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마찬가지로 방임 또한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4.59%)의 응답만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13.11%)과 가족 해체 유형(13.53%)의 경험 비율은 유사하였다.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비율은 가족 해체 유형(98.50%)에서 눈에 띄게 높았으며, 가구원의 우울 또한 해당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21.05%).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성의 경우, 전체 청소년(46.80%)과 비교하여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54.85%)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51.97%)에 속한 청소년에게서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 해체 유형(16.54%)의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가족 해체 유형(5.26%)에서 가장 낮았으며,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29.86%)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30.57%)의 경험 비율은 전체 청소년(29.86%)의 응답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분류된 유형과 각각의 부정적 생애경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잠재계층은 여덟 가지의 부정적 생애경험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 3.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에 따라 폭력비행 가해 가능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또래 요인,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였으며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을 준거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간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을 비교한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보다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2.031배 높았다( $OR=2.031$ ,  $p < .05$ ). 반면,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과 가족 해체 유형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Wald-test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가족 해체 유형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폭력비행 가해 경험과 통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의 폭력비행 위험이 1.7배 높았다( $OR=1.700$ ,  $p < .05$ ). 청소년의 연령과 또래 애착이 폭력비행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구의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폭력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OR=1.325$ ,  $p < .001$ ). 가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의 학력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확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청소년 간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차수의 경우, 13차년도 조사 참여자의 폭력비행 가해 위험이 4차년도 조사 참여자에 비해 56% 낮았다( $OR=0.440$ ,  $p < .05$ ).

표 5  
**폭력비행 가해 경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OR	B (SE)	95% CI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 (준거: 역기능적 가정환경)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2.031	0.709* (0.296)	1.14-3.63
가족 해체	1.140	0.131 (0.379)	0.54-2.39
청소년 성별 (준거: 여)	1.700	0.530* (0.265)	1.01-2.86
청소년 연령	0.751	-0.286 (0.148)	0.56-1.00
또래 애착	1.103	0.098 (0.069)	0.96-1.26
친구의 비행	1.325	0.281*** (0.049)	1.20-1.46
교육 수준 (준거: 고졸 미만)			
고졸	0.935	-0.067 (0.348)	0.47-1.85
전문대졸	0.787	-0.240 (0.498)	0.30-2.09
대졸 이상	0.448	-0.804 (0.457)	0.18-1.10
소득 수준 (준거: 저소득)	0.714	-0.336 (0.322)	0.38-1.34
조사 차수 (준거: 4차)	0.440	-0.820* (0.342)	0.23-0.86

\* $p < .05$ , \*\* $p < .01$ , \*\*\* $p < .001$

준거집단을 제외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Wald-test를 실시한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집단과 가족 해체 집단 간 계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IV. 논 의

본 연구는 응답자 개개인의 경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 확률이 높은 청소년 집단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80.68%가 최소 하나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있으며, 특정 경험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참여자가 해당 역경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에서 표집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한 개 이상의 ACE를 경험한 비율이 60%였던 것과 비교하면(박애리, 정익중, 2018; 김준범, 손수민, 2020),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역경 경험의 비율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응답 비율에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복지패널이라는 표본의 특수성에 기인했을 수 있다. 복지패널에는 전체 표본 중 절반에 가까운 표본이 저소득가구에서 표집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가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험 음주를 하며 알코올에 의존적인 가구원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점 또한 주목할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에 대한 응답 비율이 4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 평균인 14.1%(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알코올 의존도 자가 진단표(한국형 AUDIT)는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지만, 임상적 수준의 장애를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AUDIT에는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경험’, ‘과음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과 같이 음주 행위에 관용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드물지 않게 경험되는 상황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을 지니고 위험 음주를 하는 가구원과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위험 음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조병희 외, 2018).

둘째,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은 3개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복합적 경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분류된 유형들은 경험 특징에 따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 ‘가족 해체’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먼저,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가정 내에서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배우자에 대한 폭력 경험 비율이 높으며, 알코올 의존 문제가 동반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당 유형은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50.49%와 90.78%로 세 집단 중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폭력

(44.17%) 경험 비율도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가구원과 거주하는 비율은 54.85%로, 이 또한 전체 집단의 응답(46.80%)보다 높은 수준이다. 종합해보면, 해당 유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중복 발생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문제 또한 동반되는 상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학대와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중복 발생하는 경향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로(김기현, 김용희, 김경희, 2018; 최진영, 김기현, 2020; Hamby, Finkelhor, Turner & Ormrod, 2010)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분리(3.40%)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은 세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즉, 해당 유형의 청소년들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경험하지 않으나,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가정 내에 팽배한 폭력 경험으로 인해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본 유형에는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이 속해 있다(57.46%). 해당 유형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간 폭력에 대한 응답이 높은 반면,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방임은 앞서 제시한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외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5% 내외이었으며, 정서 학대의 응답률은 0%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대 및 방임 또는 가족 내 역기능으로 분류되는 ACEs 하위 경험 중, 가족 내 역기능만이 특징적으로 높은 유형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분석 결과이다(Merians et al., 2019). 종합해보면, 해당 집단 내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보다 가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역경을 마주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해체’ 유형은 참여자의 16.69%가 속한 가장 작은 유형이다. 해당 유형의 청소년 중 98.50%는 한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한 부모와 조부모, 한 부모와 친척, 조부모 혹은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집단의 물리적 폭력 경험 비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청소년에게 가해진 정서 학대(29.32%), 성 학대(6.02%), 방임(13.53%)은 타 유형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해당 유형은 가구원의 우울증(21.05%)에 대한 응답 비율도 전체 집단(8.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가정폭력과 알코올 의존(7.77%), 배우자 폭력과 알코올 의존(5.02%) 유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아 가구원의 정신건강 상태가 취약함이 드러났다. 특히, 성 학대 경험 비율은 전체 집단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가족 해체 유형은 여타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인 폭력과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준거집단을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이 폭력비행에 가담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두 유형은

공통적으로 배우자 간 폭력을 목격한 비율과 알코올 의존증을 가진 가구원과 생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앞서 언급한 두 종류의 역경 경험 외에도 학대 및 방임 피해 경험 비율 또한 전체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해당 집단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신체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서 학대 경험 비율은 90%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유형 모두 배우자 간 폭력 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폭력이 청소년에게 직접 가해진 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경험 특성을 통해,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목격하는 것 보다 직접적인 학대 피해가 청소년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청소년 본인의 가해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간의 폭력비행 위험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누적된 위험 가설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전체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낸 역경 경험의 개수는 고 학대 및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표 4, 표 5).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역경 경험들은 모두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다양한 역경 경험을 누적되어 경험하는 것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가족 해체 유형과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의 폭력비행 가능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역기능적 가정환경 유형은 세 유형 중 부정적 생애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반면, 가족 해체 유형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유형에 속한 청소년들이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한 양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공통된 특성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생애 경험 유형이 청소년의 폭력비행 경험을 설명하는 데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만으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유형의 폭력비행이 위험이 유사한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LCA라는 연구방법을 통해 누적점수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중첩성이라는 부정적 경험의 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누적점수로 ACEs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누적점수와 ACE 점수와 특정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ACEs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점수와 부정적 결과 간의 관계 외에 다른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예컨대, ACEs 점수만으로는 어떠한 개별 경험들이 중복으로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어떠한 역경 경험의 조합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지와 같은 세부적인 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경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형 간 비교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정보는 개입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부정적 생애경험의 유형화를 통해 청소년의 역경 경험에 대해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학대·방임, 배우자 폭력, 알코올 의존 등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양상을 밝힘으로써 부처 간 협동을 통해 해당 요인들을 포섭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각기 다른 주무 부처가 앞서 언급한 세 종류의 역경 경험에 대해 대응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알코올 의존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대응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우자 간 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처로 역할을 담당한다. 알코올 의존에 대한 개입을 제공하는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서 중독자에 대한 개입을 비롯해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간 분절적인 정책 담당은 복지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오정수, 정익중, 2017) 각 대응체계의 개입 관점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김기현 외, 2018).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김기현 외(2018)와 정혜숙(2011)에 따르면 두 사건은 담당 주무 부처가 달라, 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만, 가정폭력은 여성주의 모델을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치유와 자립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의존과 배우자 폭력이 중복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담당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일차적 목표는 병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의존자의 단주와 치료이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자가 속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증재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현행 서비스 지원체계를 고려한다면, ACEs의 중복 발생 양상을 고려한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둔 개입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역경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하지만, 이는 시설운영과 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대한 개입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비행 가능성이 큰 유형의 특징은 신체 및 정서 학대, 가구원의 알코올 의존, 배우자 간 폭력을 중복경험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폭력비행 가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가정 내 직접적·간접적 폭력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알코올 의존자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가정은 청소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 체계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Bronfenbrenner, 1992). 따라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운영체계가 강화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할지라도 가정 차원의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비행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장 가까운 환경 체계인 가정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본 연구는 폭력비행 위험이 큰 부정적 생애경험 유형을 파악해 해당 집단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최근 해외에서는 ACEs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ACEs와 관련된 임상적 증상 등을 고려해 개입하는 ‘ACE-informed practice’가 주목을 받고 있다(박애리, 정익중, 2018; Hughes et al., 2017). ACEs-informed practice는 스크리닝과 사정 단계에서 ACEs 누적점수를 측정하며(Goddard, 2021), 4점을 기준으로 고위험군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ACEs 점수를 근거로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점수를 가진 고위험군 클라이언트일지라도 개인마다 경험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정 개별 경험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ACEs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입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경험 특성이 면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폭력비행 가해 위험이 큰 청소년 집단이 어떠한 양상으로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했는지 파악하였다. 이는 훗날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개입방안을 고안해내는 데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생애 경험 유형과 폭력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종단분석을 통해 ACEs와 폭력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문항들로 청소년의 역경 경험을 측정했기 때문에 국외 ACEs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ACEs에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역경 경험 외에 가구원의 수감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Felitti et al., 1998).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부모의 수감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주(州)에 따라 3%~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Maruschak, 2021). 이에 반해, 국내에서 수감자 부모를 둔 미성년자 자녀의 비율은 전체 미성년자 비율의 0.45%로(국가인권위원회, 2017)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물론 아무리 낮은 수치일지라도 부모의 수감 경험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요인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국가에 따라 역경 경험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후 국외에서 통용되는 ACEs 개념이 국내 청소년들의 역경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지, 국외의 연구 결과를 국내상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 시기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발달이 진행되어, 청소년기 내에서도 시기에 따라 행동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따라서, 중학생 시기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부정적 생애경험과 폭력비행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시기 별로 경험 유형을 분류하고, 경험 유형과 폭력비행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1).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건강지식센터 (2021.3.19.). 음주. <http://hqcenter.snu.ac.kr/archives/jiphyunjeon/%EC%9D%8C%EC%A3%BC에서> 2022년 7월 18일 인출.
- 기광도 (2012). 청소년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가정, 학교,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2), 61-86.
- 김기현, 김용희, 김경희 (2018).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연구: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 **사회복지연구**, 49(4), 221-249. doi:10.16999/KASWS.2018.49.4.221
- 김준범, 손수민 (2020). 아동기 역경경험과 생애 자살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41(2), 27-39. doi:10.5723/kjcs.2020.41.2.2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5-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9.8).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905>에서 2021년 12월 30일 인출.
- 박상식 (2013).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211-241.
- 박애리, 정익중 (2018).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잠재적 유형화: 우울, 정서조절의 어려움 및 대인관계 부적응과 유형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9(6), 85-99. doi:10.5723/kjcs.2018.39.6.8
- 박지수, 김하영, 유진경, 한윤선 (2017).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또래 비행의 유형과 특성. **아동학회지**, 38(2), 165-176. doi:10.5723/kjcs.2017.38.2.1
- 보건복지부 (2017).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오정수, 정익중 (2017).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이계성 (2012). 알코올 사용장애의 치료.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13(2), 85-90.
- 정혜숙 (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따로 또 같이”. **한국사회복지학**, 63(3), 83-108.
- 조병희, 손애리, 김민혜, 양준용, 손슬기 (2018).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최진영, 김기현 (2020). 신체학대 및 가정폭력의 중복발생과 아동의 비행궤적의 관계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7(4), 249-283. doi:10.16975/kjfs.67.4.8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2022년 알코올 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복지패널 (2019).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 2019.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 허경미 (2018). 학교폭력의 무관용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3(2), 223-254.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doi:10.1109/TAC.1974.1100705
- Appleyard, K., Egeland, B., van Dulmen, M. H., & Alan Sroufe, L. (2005). When more is not better: The role of cumulative risk in child behavior outcom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3), 235-245. doi:10.1111/j.1469-7610.2004.00351.x
- Arseneault, L., Walsh, E., Trzesniewski, K., Newcombe, R., Caspi, A., & Moffitt, T. E. (2006). Bullying victimization uniquely contributes to adjustment problems in young childre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study. *Pediatrics*, 118(1), 130-138. doi:10.1542/peds.2005-2388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2nd ed.). WHO.
- Barboza, G. E. (2018). Latent classes and cumulative impa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hild Maltreatment*, 23(2), 111-125. doi:10.1177/1077559517736628
- Belfield, C. R., Levin, H. M., & Rosen, R. (2012). The economic value of opportunity youth.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1-28.
- Bernburg, J. G., Krohn, M. D., & Rivera, C. J. (2006). Official labeling, criminal embeddedness, and subsequent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labeling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1), 67-88.
- Blum, R. W., Astone, N. M., Decker, M. R., & Mouli, V. C. (201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arly adolescence: A platform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6(3), 321-331. doi:10.1515/ijamh-2013-0327
- Bronfenbrenner, U. (1992). Ecological systems theory. In R. Vasta (Ed.), *Six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pp. 187-249). UK: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ushman, B. J., Newman, K., Calvert, S. L., Downey, G., Dredze, M., Gottfredson, M., Jablonski, N. G., Masten, A. S., Morrill, C., Neill, D. B., Romer, D., & Webster, D. W. (2016). Youth violence: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merican Psychologist, 71*(1), 17-39. doi:10.1037/a0039687
- Dahlberg, L. L., & Potter, L. B. (2001). Youth violence: Developmental pathways and prevention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0*(1), 3-14. doi:10.1016/S0749-3797(00)00268-3
- David-Ferdon, C., Simon, T. R., & Knuth, A. (2014). *Preventing youth violence: Opportunities for action*.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David-Ferdon, C., Vivolo-Kantor, A. M., Dahlberg, L. L., Marshall, K. J., Rainford, N., & Hall, J. E. (2016). *A comprehensive technical package for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and associated risk behaviors*.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DeLisi, M., & Vaughn, M. G. (2014). Foundation for a temperament-based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and criminal justice system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1), 10-25. doi:10.1016/j.jcrimjus.2013.11.001
- Dube, S. R. (2018). Continuing conversations about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screening: A public health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85*, 180-184. doi:10.1016/j.chiabu.2018.03.007
- Eren, O., & Mocan, N. (2021). Juvenile punishment, high school graduation, and adult crime: Evidence from idiosyncratic judge harsh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3*(1), 34-47. doi:10.1162/rest\_a\_00872
- Evans, G. W., Li, D., & Whipple, S. S. (2013). Cumulative risk and chil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9*(6), 1342. doi:10.1037/a0031808
- Fagan, A. A., & Novak, A.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in a high-risk sample: A comparison of white and black youth.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6*(4), 395-417. doi:10.1177/1541204017735568
- Farrell, A. D., & Sullivan, T. N. (2004). Impact of witnessing violence on growth curves for problem behaviors among early adolescents in urban and rural setting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5), 505-525. doi:10.1002/jcop.20016

- Farrington, D. P. (2004). Conduct disorder, aggression, and delinquency.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627-664).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doi:10.1016/S0749-3797(98)00017-8
- Ford, K., Hughes, K., Hardcastle, K., Di Lemma, L. C., Davies, A. R., Edwards, S., & Bellis, M. A. (2019). The evidence base for routine enquiry in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 scoping review. *Child Abuse & Neglect, 91*, 131-146. doi:10.1016/j.chiabu.2019.03.007
- Garrido, E. F., Weiler, L. M., & Taussig, H. N.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health-risk behaviors in vulnerabl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5), 661-680. doi:10.1177/0272431616687671
- Geiser, C. (2012). *Data analysis with Mplu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Goddard, A.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rauma-Informed Care.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35*(2), 145-155. doi:10.1016/j.pedhc.2020.09.001
- Gregory, A., & Cornell, D. (2009). "Tolerating" adolescent needs: Moving beyond zero tolerance policies in high school. *Theory into Practice, 48*(2), 106-113.
- Haegerich, T. M., & Dahlberg, L. L. (2011). Violence as a public health risk. *American Journal of Lifestyle Medicine, 5*(5), 392-406. doi:10.1080/00405840902776327
- Hamby, S., Finkelhor, D., Turner, H., & Ormrod, R. (2010). The overlap of witnessing partner violence with child maltreatment and other victimization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youth. *Child Abuse & Neglect, 34*(10), 734-741. doi:10.1016/j.chiabu.2010.03.001
- Hughes, K., Bellis, M. A., Hardcastle, K. A., Sethi, D., Butchart, A., Mikton, C., ... & Dunne, M. P. (2017). The effect of multipl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heal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2*(8), e356-e366. doi:10.1016/S2468-2667(17)30118-4
- Hunt, T. K., Slack, K. S., & Berger, L. M. (201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behavioral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67*, 391-402. doi:10.1016/j.chiabu.2016.11.005

- Kurlychek, M. C., & Johnson, B. D. (2019). Cumulative disadvantage in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2, 291-319. doi:10.1146/annurev-criminol-011518-024815
- Lansford, J. E., Dodge, K. A., Fontaine, R. G., Bates, J. E., & Pettit, G. S. (2014). Peer rejection, affiliation with deviant peers, delinquency, and risky sexual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0), 1742-1751.
- Lansford, J. E., Miller-Johnson, S., Berlin, L. J.,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2007). Early physical abuse and later violent delinqu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Child Maltreatment*, 12(3), 233-245. doi:10.1177/1077559507301841
- Laura M. M., Jennifer B., & Mariel A. (2021). *Parents in Prison and Their Minor Children: Survey of Prison Inmates, 2016*.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s://bjs.ojp.gov/content/pub/pdf/pptmcspi16st.pdf>
- Lewinsohn, P. M., Seeley, J. R., Roberts, R. E., & Allen, N. B. (1997).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s a screening instrument for depression among community-residing older adults. *Psychology and Aging*, 12(2), 277. doi:10.1037/0882-7974.12.2.277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doi:10.1093/biomet/88.3.767
- Masyn, K. E.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d Finite Mixture Modeling. In Todd D. Litt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pp. 551-61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cEwen, C. A., & Gregerson, S. F. (2019).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at 20 year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6(6), 790-794. doi:10.1016/j.amepre.2018.10.016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NY: Wiley.
- Merians, A. N., Baker, M. R., Frazier, P., & Lust, K. (2019). Outcomes related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 college students: Comparing latent class analysis and cumulative risk. *Child Abuse & Neglect*, 87, 51-64. doi:10.1016/j.chiabu.2018.07.020
- Moreland, A., & Ressler, K. J. (2021). A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trauma and the criminal juvenile justice system: Using a trauma-informed lens for meaningful and sustained change.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9(3), 216-224. doi:10.1097/HRP.0000000000000290

- Moylan, C. A., Herrenkohl, T. I., Sousa, C., Tajima, E. A., Herrenkohl, R. C., & Russo, M. J. (2010).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1), 53-63.
- Mrug, S., & Windle, M. (2009). Bidirectional influences of violence exposure and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Externalizing behaviors and school connectednes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5), 611-623.
- Murray, J., Loeber, R., & Pardini, D. (201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youth theft, marijuana use, depression, and poor academic performance. *Criminology, 50*(1), 255-302. doi:10.1111/j.1745-9125.2011.00257.x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Quinlan, E. B., Barker, E. D., Luo, Q., Banaschewski, T., Bokde, A. L., Bromberg, U., & Schumann, G. (2020). Peer victimiz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brai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Molecular Psychiatry, 25*(11), 3066-3076.
- Sameroff, A. J. (2000). Dialectical processes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Arnold J. Sameroff, Michael Lewis, Suzanne M.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p. 23-40). Boston, MA: Springer.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taff, J., & Kreager, D. A. (2008). Too cool for school? Violence, peer status and high school dropout. *Social Forces, 87*(1), 445-471. doi:10.1353/sof.0.0068
- Waite, R., & Ryan, R. A. (2019).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hat students and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know*. England, UK: Routledge. doi:10.4324/9780429261206

- Williams, S., Anderson, J., McGee, R., & Silva, P. A. (1990). Risk factors for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 in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413-419. doi:10.1097/00004583-199005000-00013
- Wilson, H. W., Berent, E., Donenberg, G. R., Emerson, E. M., Rodriguez, E. M., & Sandesara, A. (2013). Trauma history and PTSD symptoms in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Victims & Offenders, 8*(4), 465-477. doi:10.1080/15564886.2013.835296
- Wolff, K. T., Baglivio, M. T., & Piquero, A. R.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recidivism in a sample of juvenile offenders in community-based 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1*(11), 1210-1242. doi:10.1177/0306624X15613992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June 08). Youth viol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trieved December 17, 2021,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youth-violence>

## ABSTRACT

### A study on the latent classe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olescent violent delinquency in South Korea

Kim, Seonyeong\* · Han, Yoonsu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have detrimental effects on adolescents' development and could lead to maladaptive outcomes. Violent delinquency, a type of maladaptive behavioral outcome, can seriously harm their well-being.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western samples, no study has yet explored the ACEs of Korean adolescents. To fill this gap, the current study aimed to identify distinct subtypes of ACEs using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latent groups and violent delinquency. Using waves four and thirteen of the nationally-representativ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our types of maltreatment (physical/emotional/sexual abuse, and neglect) and four types of household dysfunctions (family history of alcohol dependence, parental depressi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arental separation) were assessed. Three distinct groups were identified as follows: high abuse and family dysfunction (25.85%), family dysfunction (57.46%), and family dissolution (16.69%). Compared to the family dysfunction group, the high abuse and family dysfunction group were at a higher risk of engaging in violent delinquency. Findings such as these may emphasize the need for attention to ACEs among adolescents and the results also suggest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trauma-based interventions.

**Key Words:** adolescent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violent delinquency, latent class analysis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